

### <3,4월에 드리는 말라위 선교편지>

금년도의 우기는 다른 해와 달리 비가 정작 필요한 지역에는 적게 오거나 거의 안 오고 또 비가 별로 필요 없는 지역에는 비가 많이 와 비피해가 참으로 컸습니다. 더욱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말라위 호수 수위보다 댐수위가 45센티나 높아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에는 침수와 더불어 농작물 피해가 극심합니다. 더욱이 이제 한 두 달 후면 옥수수 수확철이 시작되는데 옥수수가 영글지 않아 걱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많은 각료들이 부정부패와 연루되어 감옥에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서 옥수수 값이 안정되어 실로 다행입니다.

#### ● 말라위 상황



금년도 헝거시즌에는 이웃 나라인 모잠비크와 잠비아로부터 많은 옥수수들을 수입하고 있어 전정부의 헝거시즌과는 달리 옥수수 값이 55,000-65,000과차(50kg) 안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해에는 120,000k가 넘어섰었는데 주식인 옥수수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전쟁이 오기전에 휘발유 값을 거의 두배로 올려서(2750→4955k)로 모든 물가가 올랐으나 정부에서 강한 통제를 하여 물가안정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선 절취범 및 변압기 탈취를 시도하다 여러 명이 죽고 익어가는 옥수수를 훔치는 생활형 범죄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암울하게도 지난달에 이어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 흙으로만 지어진 화장실이 무너져 30살 먹은 아버지와 10살짜리 아들이 동시에 죽는 비극이 발생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 옥수수 농장



함께하는 교회의 후원으로 집짓기 사역과 더불어 농장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저희가 옥수수 씨앗을 뿌린 뒤 그래도 비가 풍부하게 와서 농작물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수수 열매가 사라지고 있어 둘러보았더니 추수 수확기 전에 익은 옥수수(도웨) 도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식사대용으로 비싸게 팔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옥수수 농장 취약지역에 초소를 만들어 하루에 세명씩 번갈아 가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지인들에게는 옥수수 농장이 중요하고 간절한 염원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짓는 옥수수 농장이라 기대도 크고 앞으로 현지인들의 재정 자립의 큰 기반이 되는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교회 멤버들 중 아주머니들이 지키고 밤에는 젊은 장정들이 교대로 오후6부터 아침 5시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5월 추수기때까지 날씨를 주관하시고 도둑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 지기를 기도합니다.

- 오두막공동체 대표 방문



제법 큰 규모의 농사를 짓다 보니 무엇보다도 트랙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옥수수 농사를 짓기 전에 트랙터를 이용하려고 하였더니 주변에 있는 농장들이 농업대학 소유의 땅 인데다가 많은 농장주들이 미리 1년전부터 사업계획서 트랙터 사용신청서를 써야 하는데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필요성을 놓고 기도하던 터에 말라위 농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한국의 오두막 공동체 대표님이 마침 우리 농장을 방문할 기회가 생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션의 자립경영을 위해 꼭 트랙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 문해교육과 만나교육



말라위에서 성경읽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먼저 문해교육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치체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현실이라 유치원교사들 중심으로 문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들은 많은데 결석하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꾸준히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에 문해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에 한하여 Certificate(수료증)을 주고자 합니다.

출석률도 높이고 학업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매월 출석 양호자와 학업성취자들에게는 그 귀한 설탕 한봉지와 가루비누를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수업시간을 이용해서 만나바이블을 읽히고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쓸수 있는 자유함을 갖게 하옵소서.

- 재봉교육



재봉교육은 어느 대학교 총장님과 캐나다 어느 후원자의 후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봉틀 9대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전기 재봉틀 3대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재봉교육을 통해서 말라위 큰빛 유치원생들이 졸업하고 Public School(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유치원 유니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수업생들이 만들 지는 못하지만 재봉선생님의 도움을 얻어 만들어서 졸업선물로 제공하니 얼마나 뜻깊은 일인 줄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졸업생이 33명이나 되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봉교육을 통하여 직업도 창출하고 복음의 또다른 계기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 유치원 사역



어느덧 유치원 사역의 횡수도 깊어져 5년이 되어 갑니다. 드림스 드림의 후원으로 유치원이 말라위에 2개나 지어졌습니다.

그동안 무료 유치원에다 주 일회 영양죽 제공 과 치료비 후원 및 초등학교 유니폼 및 책가방과 문구류를 졸업선물로 주다보니 기독교 유치원으로 근처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유치원 교복은 저희 재봉학교에서 만들고 있지만 30여명의 가방을 사주기가 어렵습니다. 가격도 예전에는 9천원 정도 였는데 지금은 3만원이 상로 올랐습니다.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 인원제한을 할 정도로 한 팀에 70명을 제한하고 있다.

지금까지 졸업한 학생들과 앞으로 우리 큰빛 유치원을 졸업할 학생들이 말라위의 다음세대 리더로 성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는 정식교사 3명과 보조교사 2명으로 말라위의 유치원 중에서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 다음세대의 크리스천 리더로서 말라위의 변화의 중추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 쌍둥이 아이의 죽음



케서린은 대추장의 딸인데 얼마전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귀여운 쌍둥이 엄마인데 그중 여자아이가 며칠전부터 먹지를 앓고 토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8개월을 채 살지도 못한 채 하늘나라

로 갔습니다.

거의 2000여명의 조문객이 왔어도 그 누가 케서린의 마음에 위로를 줄수 있을까요?

우리 트럭에 아기관을 싣고 흐느껴 우는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친척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Timber 3-4개를 사주고 조문객들이 먹을 옥수수를 주고 트럭을 빌려주었건만 이 무슨 위로가 된다는 말인가요?

아이를 묻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참으로 무겁기만 하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피워보지도 못한 한 영혼이 너무도 불쌍하기만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주말에 교회리더들과 성가대와 함께 아이엄마인 케서린을 방문하여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해드릴까를 기도해봅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새로 지어준 집에서 살아보지도 자라지도 못하고 떠난 영혼이 주님곁으로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1. 물가가 역대급으로 폭등하고 있는데다 휘발유값이 두배로 폭등하여 생활 모든 물가가 급등하였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 더 오른다고 합니다. 또한 폭우로 인해 농작물피해와 함께 많은 지역들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말라위 정부와 위정자들이 지혜와 인내로 잘 극복하고 현지인들도 믿음과 인내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2. 옥수수 농작물에 피해가 생기지 않고 잘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 100채 집짓기 사업이 2026년도에는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위해 젊은 동역자 및 협력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컴퓨터, 유치원, 청소년 영어교사, 그리고 재봉틀과 각종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단기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 민경화,김홍희 선교사의 건강과 온전한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 지길 기도 요청합니다. 샬롬

말라위 민경화/홍희선교사드림